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안군의회의원선거  
부안군가선거구(부안읍·행안면) 무소속

책자형 선거공보

청년도  
청소년도  
어르신도

답은

기호 5 김성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부안군의회의원선거 부안군가선거구

##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
5	무소속	김성찬	남	1978.06.04 (48세)	자영업	전주대학교 전자매체공학부 졸업	(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 커플링 강사 (현) 백산고등학교 운영위부위원장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09,293	53,793	39,900	모 : 고지거부	장남 : 12,000 차남 : 3,600	육군병장 (만기전역)	해당없음	장남 : 기타 (2026년 병역판정검사대상)

## 3. 세금 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852	0	0	해당없음
후보자	778	0	0	
배우자	74	0	0	
직계존속	모 : 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 4. 소명서

해당없음
------

# 군민의 대표선수

## 군민을 섬기는 군의원 후보!

부안이 낳고 행안이 키운!

부안을 행안면 군의원 후보 김성찬 인사드립니다.

지난 3년여동안 저는 군민들의 **마음에** **속** 들도록 부안과 행안을 구석구석을 살피며 많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군민의 대표선수 군민을 섬기는 군의원 후보!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마라” 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다 깨지듯이  
모든 것을 몰아두면 한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지금의 부안은 어떠한가?  
다 똑같은 하나의 정당이 푹푹 뭉쳐 군민들의  
한숨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입으로만 “풀뿌리 민주주의 꽃 지방자치 시대” 를 외치며  
행동으로는 한 정당만 섬기고 있는게 현 실정이 아닙니까!

김성찬은 딱 일할나이, 딱 부러먹을 나이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몇가지를 약속하고 이행하려 합니다,

**첫째** 행정의 예산낭비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지역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더 챙기겠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자의 역할과 생활 밀착형 조례를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교육과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특색과 흥미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들을 위한 골다공증 검사와 예방약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정하여 어르신들의 뼈속까지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군기초의원 가선거구 후보 김성찬 올림

# “ 지켜 낼 수 있는

## 첫째

### 부안읍 100원 셔틀버스 운행

- ★ 터미널 ~ 군청 ~ 수영장 ~ 옹기종기센터 ~ 사회복지관 ~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일대 ~ 시내  
군민들이 편하게 행정업무를 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 곳곳을 셔틀버스가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 각 마을 경로당 기능보강

- ★ 경로당 출입문 자동문으로 교체
- ★ 경로당 진입로 (계단, 경사로) 열선 설치  
실버카를 이용하여 진출입을 하시기에 불편한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여 손가락 끼임사고를 예방하며 겨울에는 빙판으로 인한 낙상을 방지하여 안전한 출입을 하시게 하겠습니다.

## 셋째

### 각 거리마다 특색있는 거리조성

- ★ 부안초 ~ 아담사거리  
공방의 거리를 조성하여 전통시장과 연계한 신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회제공
- ★ 아담사거리 ~ 구)소방서  
분식의 거리를 조성하여 맛갈나는 길거리를 만들겠습니다.
- ★ 시장 팔죽의 거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팔죽집과 보리밥, 칼국수집 등을 한곳으로 모여 부안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 약속입니다. ”

넷째

## 청년의 기반을 조성

- ★ 청소년 특기자 지원 및 청년 정책 우수제안자 계약직 특혜 및 청년 위탁 영농단을 구성하여 청년이 부안에 뿌리를 내릴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 인도 정비

- ★ 부안읍에 설치된 인도가 기형적을 변하여 실버카와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 김성찬기고 – 부안의 멈춤시간!

이석기 기자 / buannews@hanmail.net | 입력 : 2025/12/15 20:31

부안읍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옆에 둔 맛과 멋, 풍요로움을 두루 갖춘 시골형 도시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부안의 인구는 약 4만7천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1만8천여 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상당수는 거의 매일 병·의원과 한의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공간이 바로 터미널 사거리다. 병원과 약국, 시내·시외버스 터미널, 전통시장과 상가가 밀집한 이곳에서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려면 횡단보도를 두 번이나 건너야 한다. 교통신호 체계 또한 보행자 중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직·좌회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에 막혀 멈춰 서는 장면이 반복된다.

연세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고 가정해 보자. 제한된 시간 안에 교차로를 모두 건너기란 쉽지 않다. 이 불편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하다. 터미널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 번의 신호로 교차로 전체를 건널 수 있다면 보행 거리와 대기 시간은 크게 줄어들고, 어르신들에게는 그 자체로 큰 배려가 된다.

대각 횡단보도의 장점은 편의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행 신호 동안 모든 차량이 정지함으로써 좌·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줄어들고, 보행자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안 시내 한복판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다.

비슷한 문제는 부안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도 반복된다. 등굣길마다 모범운전자회와 경찰, 학부모들의 교통봉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공2차와 주공4차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두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채 신호를 기다리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실제로 로컬푸드 앞을 지나 동초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보면 보행 신호를 지키지 못하고 길을 건너는 아이들도 쉽게 눈에 띈다.

이곳 역시 대각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차량이 멈추는 구조 속에서 운전자 스스로 학교 앞 서행을 의식하게 되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한층 안전한 통학로로 바뀔 것이다.

'부안의 멈춤'은 길어야 1분 30초 남짓이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운전자들은 상가를 바라보고, 살아 숨 쉬는 부안의 거리를 느낄 수 있다.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는 정책, 그것이 곧 복지다.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 작은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석기 기자 / buannews@hanmail.net 입력 : 2025/12/15 20:31



김성찬/부안군 부안읍

# 청년도 청소년도 어르신도





청년도  
청소년도  
어르신도

# 답은 김성찬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1-가	0000	000	
1-나	0000	000	
1-다	0000	000	
3	0000	000	

5 무소속 김성찬 

무소속 김성찬 후보는  
위에서 다섯번째 기호 5번 입니다

## 학 력

부안남초등학교 졸업

부안중학교 졸업

전주공업고등학교 졸업 (학생회장)

전주대학교 졸업 (공학부 학생회장)

## 약 력

(前) 부안동초등학교 운영위원 및 부위원장

(前) 부안군 체육회 이사

(前) 전주대학교 산학협력 커플링사업 강사

(前) 삼남중학교 학부모회장 및 운영위원

(現) 부안중학교 총동문회 이사

(現) 백산고등학교 운영위원 및 부위원장

마음에 **쏙!!**

기호

# 5 김성찬!